

아파트 내부공간에 대한 거주자 의식 및 평가*

Resident's Consiousness and Evaluation toward Apartment Interior Space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住生活學科
教 授 池 淳
助教授 李 連 淑
研究助教 柳 聖 姬·吳 燦 玉
崔 秉 淑·洪 善 靈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 Soon Chi(Won)

Assistant Prof.; Yeun Sook Lee

Research Assitant; Seong Hee Yoo, Chan Ohk Oh

Byung Sook Choi, Sun Kyung Hong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조사결과 분석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residents' responses and evaluation about their apartment interior environment and thereby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designing residential space environment of new apartment complex in Sanggae area. The specific objectives of research were (1) to examine the residents' value and life style concerning several specific rooms, (2) to find out residents' evaluation on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3) to understand residents' preference and demand for characteristics of interior space.

Research method used was personal interview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sidents living in 13, 15, 18, 22, 25 pyung in three selected large apartment complex areas provided data: 77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computer package. The statistics used were frequency, percentage, mean, F-test, χ^2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indings from the research as follows:

* 대한주택공사 상계사업단의 의뢰에 의한 연구보고서 요약임. 전문보고서는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와 대한주택공사에 있음.

II. 이론적 배경

1. 공간환경 평가의 중요성

계획된 공간의 평가를 위한 어떠한 기준을 명백히 정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만족도 자체를 쉽게 정의내릴 수 없으며,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환경평가 분야에서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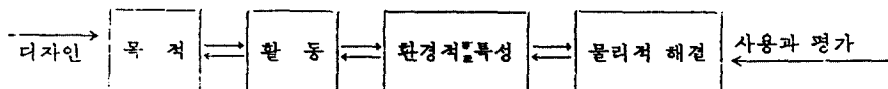
공간사용의 평가결과가 대부분 설계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의 물리적 환경이 공간사용자의 만족을 결정짓는데 비교적 영향이 적은 요인이 되곤 해왔다. 그러나 Gutman (1972)은 공간사용자의 만족에는 크게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물리적인 건축환경은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비교적 적응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환경의 질이 그들의 생활에 의미가 있게 되는 어떠한 한도점이 있으며, 둘째 불편해 보이는 상태에 잘 적응할지라도 그들의 선호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셋째 물리적 환경이 공간사용자의 만족에 적은 영향을 미치더라도 특정사고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넷째 평가연구의 결과가 설계자들에게 다음 작업을 위해 상환된다면 그 정보는 가치가 있는 것이며, 물리적 인위적 환경의 영향은 결국 설계자들이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Gutman, 1971).

2. 공간환경 평가 과정

공간환경 평가에는 지어진 공간환경의 실용성에 관한 정보를 단지 얻기위한 연구와, 그 정보를 기존건물이나 새건물에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 전자의 평가연구도 가치가 있지만, 더 바람직한 건축환경조성에 있어서는 후자의 평가연구가 더 가치가 있다.

(그림)



Brill(1972)은 평가체계를 개발하는데에 디자인 성능(performance)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정식적인 평가연구 발달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능의 개념은 4단계의 서로 연결되는 평가과정을 유도해 내는데 그것은 첫째, 대상건물의 목적, 둘째 대상건물에서 기대되는 행위와 활동, 셋째 대상건물이 갖추어야 하는 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넷째, 물리적인 해결이다(그림참조). 여기서 환경적인 특성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인간이 어떤 행위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환경이 반드시 제공해주어야 하는 질이나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림에서는 디자인 계획과정과 그 공간환경을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과정이거나 평가하는 과정 두 방향으로 화살표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어느 특정 공간환경의 목적이나 그 곳에서 펼쳐지는 생활과 활동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공간의 질과 배치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만이 디자인 능력을 증진 시켜 준다.

3. 집합주택에서 평가 연구의 중요성

아파트는 대량생산이라는 개념에 연결되는 하나의 집합주택양식으로써 일단 한번 계획되어 건설되면 다른 대량생산품과 같이 그 영향력의 영역은 광범위하므로 계획된 주거공간을 사용할 대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은 잘 디자인되면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불만을 초래하게되며 각종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결국 인간생활의 복지에 지장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대량생산되는 주택을 계획할 때는 특히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하며, 일단 계획한 후에도 그다음 계획을 위해 반드시 평가를 하여야한다.

건축, 특히 대량생산화 되어가는 주택건물에 있어, 그것이 목적에 맞게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계획된 평가연구는 드물다. Brill(1972)은 건축이 실제될때 실제질이 갖는 가정, 즉 공간형성에 따른 인간행동에 대한 가정이 입주후에 얼마나 적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관심을 갖는

설계팀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한 것은 평가되지 않은 건물이 그 설계팀의 하나의 레파토리가 되어 다시 이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건물은 가설이 명백히 세워지지도 않고, 검증되어 지지 않으면 단지 잘못 계획된 일종의 실험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식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연구가 없어왔다는 사실은 디자인 과학 발달에 주된 장애요인이 되어왔다(Briill, 1972) 물론 평가의 성격을 띤 연구가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느 특정건물의 목적과 사용상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연결되어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또한 정식적인 체계적 절차를 밟지않고 이루어져왔다.

4. 우리나라의 평가연구 예

우리나라에도 평가의 성격을 띤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그 종류는 단지 평가연구 자체를 위한 단편적인 것들이 많았다. 평가연구들은 실내공간 전체를 다룬 것과 특정공간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집합주택에 관련된 연구 특히 실내공간에 관련된 연구들 중 몇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실내공간 전체를 다룬 조사들중에는 대한주택공사(1984)의 것 2가지를 들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1984)는 당사의 주택건설계획 및 합리적인 판터 업무대행을 위하여 19개 주공 아파트단지에서 2,500명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선호, 희망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한주택공사(1984)는 융통성 있는 주거형 개발을 위하여 3개 주공 아파트 단지(과천, 개포, 고덕)의 199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아파트의 실내배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이들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빈도만을 사용하고, 변인과 변인간의 관련성을 찾으려는 고도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라기 보다는 자료집의 성격을 더 띄었다고 하겠다.

특정 실내공간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 중에는 김걸(1981)과 최희재(1984)의 것이 있다. 김걸(1981)은 가족구성과 집합 주거의 거실과 식당등의 배치상태와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내의 36명형 198가구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수가 증가함에 따라 식당이 거실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며, 식당을 비롯한 다른 면적 공간보다는 거실면적의 증가를 우선적으로 원함을 밝혔다. 최희재(1984)는 아파트의 식사공간에 대한 만족경도와 희망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구(강남구, 강동구, 영등포구)의 25명부터 45명 규모까지의 거주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공간의 유형중 독립형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밝혔다.

Ⅲ.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남편의 평균 연령은 39세였고, 주부의 평균 연령은 35.6세였으며 가족수는 평균 4명이었다. 가정생활주기는 71.4%가 형성기나 확대 초기에 있었으며,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87.3%가 20만원에서 80만원사이였다. 또한 남편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76.9%이고, 주부의 53.8%가 고졸이었다.

2. 아파트 내부공간에 관한 의식 및 평가

1) 생활양식에 관련된 거주자의 가치관

아파트 각 실내공간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거주자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가를 χ^2 -test 하여 알아보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기대빈도와 관찰빈도를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1) 거실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응답자의 91.9%가 거실은 가족들의 대화, 휴식, 오락 등이 이루어지는 가족중심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실이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외부인을 의식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1%에 불과하였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거실의 손님접대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가족중심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거실이 용접실의 개념에서 가족실(family room)의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간환경 평가의 중요성

계획된 공간의 평가물 위한 어떠한 기준을 명백히 정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만족도 자체를 쉽게 정의내릴 수 없으며,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환경평가 분야에서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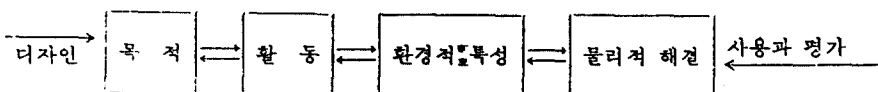
공간사용의 평가결과가 대부분 설계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의 물리적 환경이 공간사용자의 만족을 결정짓는데 비교적 영향이 적은 요인이 논의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Gutman (1972)은 공간사용자의 만족에는 크게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물리적인 건축환경은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비교적 적응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환경의 질이 그들의 생활에 의미가 있게 되는 어떠한 한도점이 있으며, 둘째 불편해 보이는 상태에 잘 적응할지라도 그들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셋째 물리적 환경이 공간사용자의 만족에 적은 영향을 미치더라도 특정사고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넷째 평가연구의 결과가 설계자들에게 더듬 작업을 위해 상환된다면 그 정보는 가치가 있는 것이며, 물리적 인위적 환경의 영향은 결국 설계자들이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Gutman, 1971).

2. 공간환경 평가 과정

공간환경 평가에는 지어진 공간환경의 실용성에 관한 정보를 단지 얻기위한 연구와, 그 정보를 기존건물이나 새건물에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 전자의 평가연구도 가치가 있지만, 더 바람직한 건축환경조성에 있어서는 후자의 평가연구가 더 가치가 있다.

(그림)



Brill(1972)은 평가체제를 개발하는데에 디자인 성능(performance)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정식적인 평가연구 발달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능의 개념은 4단계의 서로 연결되는 평가과정을 유도해 내는데 그것은 첫째, 대상건물의 목적, 둘째 대상건물에서 기대되는 행위와 활동, 셋째 대상건물이 갖추어야하는 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넷째, 물리적인 해결이다(그림참조). 여기서 환경적인 특성개념이 가장 중요할때 이는 인간이 어떤 행위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환경이 반드시 제공해주어야 하는 질이나 특성이다. 그림에서는 디자인 계획과정과 그 공간환경을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과정이거나 평가하는 과정 두 방향으로 화살표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어느 특정 공간환경의 목적이나 그 곳에서 펼쳐지는 생활과 활동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공간의 질과 배치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만이 디자인 능력을 증진 시켜 준다.

3. 집합주택에서 평가 연구의 중요성

아파트는 대량생산이라는 개념에 연결되는 하나의 집합주택양식으로써 일단 한번 계획되어 건설되면 다른 대량생산품과 같이 그 영향력의 영역은 광범위하므로 계획된 주거공간을 사용할 대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은 잘 디자인되면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불만을 초래하게되며 각종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결국 인간생활의 복지에 지장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대량생산되는 주택을 계획할 때는 특히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하며, 일단 계획한 후에도 그다음 계획을 위해 반드시 평가를 하여야한다.

건축, 특히 대량생산화 되어가는 주택건물에 있어, 그것이 목적에 맞게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계획된 평가연구는 드물다. Brill(1972)은 건축이 설계될때 설계팀이 갖는 가정, 즉 공간형성에 따른 인간행동에 대한 가정이 입주후에 얼마나 적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관심을 갖는

설계팀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한 것은 평가되지 않은 건물이 그 설계팀의 하나의 레파토리가 되어 다시 이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건물은 가설이 명백히 세워지지도 않고, 검증되어 지지 않으면 단지 잘못 계획된 일종의 실험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식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연구가 없어왔다는 사실은 디자인 과학 발달에 주된 장애요인이 되어왔다(Briill, 1972) 물론 평가의 성격을 띤 연구가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느 특정건물의 목적과 사용상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연결되어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또한 정식적인 체계적 절차를 밟지않고 이루어져왔다.

4. 우리나라의 평가연구에

우리나라에도 평가의 성격을 띤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그 종류는 단지 평가연구 자체를 위한 단편적인 것들이 많았다. 평가연구들은 실내공간 전체를 다룬 것과 특정공간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집합주택에 관련된 연구 특히 실내공간에 관련된 연구들 중 몇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실내공간 전체를 다룬 조사들중에는 대한주택공사(1984)의 것 2가지를 들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1984)는 당사의 주택건설계획 및 합리적인 판리 업무대행을 위하여 19개 주공 아파트단지에서 2,500명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선호, 희망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한주택공사(1984)는 융통성 있는 주거형 개발을 위하여 3개 주공 아파트단지(과천, 개포, 고덕)의 199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아파트의 실내배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이들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단계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빈도만을 사용하고, 변인과 변인간의 관련성을 찾으려는 고도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라기 보다는 자료집의 성격을 더 띠었다고 하겠다.

특정 실내공간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 중에는 김걸(1981)과 최희재(1984)의 것이 있다. 김걸(1981)은 가족구성과 집합 주거의 거실과 식당 등의 배치상태와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내의 36명형 198가구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수가 증가함에 따라 식당이 거실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며, 식당을 비롯한 다른 면적 공간보다는 거실면적의 증가를 우선적으로 원함을 밝혔다. 최희재(1984)는 아파트의 식사공간에 대한 만족도와 희망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구(강남구, 강동구, 영등포구)의 25명부터 45명 규모까지의 거주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공간의 유형중 독립형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밝혔다.

III.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남편의 평균 연령은 39세였고, 주부의 평균 연령은 35.6세였으며 가족수는 평균 4명이었다. 가정생활주기는 71.4%가 형성기나 확대 초기에 있었으며,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87.3%가 20만원에서 80만원사이였다. 또한 남편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76.9%이고, 주부의 53.8%가 고졸이하였다.

2. 아파트 내부공간에 관한 의식 및 평가

1) 생활양식에 관련된 거주자의 가치관

아파트 각 실내공간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거주자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가를 χ^2 -test 하여 알아보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기대빈도와 관찰빈도를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1) 거실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응답자의 91.9%가 거실은 가족들의 대화, 휴식, 오락 등이 이루어지는 가족중심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실이 손님 접대하는 공간으로 외부인을 의식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1%에 불과하였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거실의 손님접대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가족중심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거실이 응접실의 개념에서 가족실(family room)의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Ⅱ-1〉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과 거실에서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구분		거실에 대한 가치관		가족중심적인 공간		손님접대 공간		계		χ^2
		f	%	f	%	f	%	f	%	
평면 규모	13 평	111	14.3	11	1.4	122	15.7	N.S. 2.76		
	15 평	119	15.4	14	1.8	133	17.2			
	18 평	200	25.8	17	2.2	217	28.0			
	22 평	127	16.4	12	1.5	139	17.9			
	25 평	155	20.0	9	1.2	164	21.2			
	계	712	91.9	63	8.1	775	100.0			
가족 수	2 명	40	5.2	4	.5	44	5.7	N.S. 3.12		
	3 명	160	20.6	14	1.8	174	22.5			
	4 명	347	44.8	34	4.4	381	49.2			
	5 명	125	16.1	6	.8	131	16.9			
	6 명 이상	40	5.2	5	.6	45	5.8			
	계	712	91.9	63	8.1	775	100.0			
가정 생활 주기	가 족 형 성 기	289(+7.3)	39.7	18(-7.3)	2.5	307	42.2	14.83**		
	확 대 초 기	199(+3.6)	27.3	14(-3.6)	1.9	213	29.3			
	확 대 중 기	93(-1.5)	12.8	10(+1.5)	1.4	103	14.1			
	확 대 후 기	24(-3.5)	3.3	6(+3.5)	.8	30	4.1			
	축 소 기	93(-5.8)	8.7	12(+5.8)	1.6	75	10.3			
	계	668	91.8	60	8.2	728	100.1			
수 입	20만원 미만	6	.8	0	0	6	.8	N.S. 10.40		
	20만원~40만원 미만	153	19.9	15	1.9	168	21.8			
	40만원~60만원 미만	294	38.2	35	4.5	329	42.7			
	60만원~80만원 미만	170	22.1	5	.6	175	22.7			
	80만원~100만원 미만	65	8.4	7	.9	72	9.4			
	100만원 이상	19	2.5	1	.1	20	2.6			
	계	707	91.8	63	8.2	770	100.0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유의적이지 않음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만큼 수치임.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 거실에서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 한 결과 〈표 Ⅱ-1〉과 같이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평면규모, 가족수, 수입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거실에 대한 가치관은 조세대상가구 전체의 분포경향과 비교할 때 가정생

활주기가 형성기에서 확대기를 거쳐 축소기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 거실을 가족중심적인 공간에서 손님접대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정생활주기의 초기단계에서는 어린자녀의 노는 생활을 부모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거실을 가족중심적인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큰 반면, 그 이후에는 자녀들의 성장, 부부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각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인 활

〈표 Ⅱ-2〉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과 침실(안방)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구분	침실 1(안방)에 대한 가치관	부부중심적인 공간		가족중심적인 공간		손님접대공간		계		x ²
		f	%	f	%	f	%	f	%	
평면규모	13 평	61(-17.1)	7.9	47(+16.8)	6.1	14(+.3)	1.8	122	15.7	20.44**
	15 평	84(+1.1)	10.8	36(+3.1)	4.6	13(-1.9)	1.7	133	17.2	
	18 평	143(+4.1)	18.5	51(-2.8)	6.6	23(-1.4)	3.0	217	28.0	
	22 평	92(+3)	11.9	27(-7.4)	3.5	20(+4.4)	2.6	139	17.9	
	25 평	116(+11)	15.0	31(-9.6)	4.0	17(-1.4)	2.2	164	21.2	
	계	496	64.0	192	24.8	87	11.2	775	100.0	
가족수	2 명	31	4.0	8	1.0	6	.8	45	5.8	N.S. 6.74
	3 명	112	14.5	41	5.3	21	2.7	174	22.5	
	4 명	251	32.4	93	12.0	36	4.6	380	49.0	
	5 명	78	10.1	37	4.8	16	2.1	131	16.9	
	6 명 이상	24	3.1	13	1.7	8	1.0	45	5.8	
	계	496	64.0	192	24.8	87	11.2	775	100.0	
가정생활주기	가족형성기	191(-4.2)	26.2	84(+6.0)	11.5	32(-1.7)	4.4	307	42.2	19.45*
	확대초기	151(+16.2)	20.7	43(-10.9)	5.9	18(-5.3)	2.5	212	29.1	
	확대중기	66(+.5)	9.1	29(+2.7)	4.0	8(-3.3)	1.1	103	14.1	
	확대후기	14(-5.1)	1.9	9(+1.4)	1.2	7(+3.7)	1.0	30	4.1	
	축소기	41(-7.3)	5.6	20(+.7)	2.7	15(+6.6)	2.1	76	10.4	
	계	463	63.6	185	25.4	180	11.0	728	100.0	
수입	20만원 미만	1(-2.8)	.1	4(+2.5)	.5	1(+.3)	.1	6	.8	25.06**
	20만원~40만원 미만	106(-1.6)	13.8	49(+7.3)	6.4	13(-5.8)	1.7	168	21.8	
	40만원~60만원 미만	200(-10.6)	26.0	95(+13.4)	12.3	34(-2.7)	4.4	329	42.7	
	60만원~80만원 미만	126(+8.0)	15.6	29(-14.4)	3.8	26(+6.4)	3.4	175	22.7	
	80만원~100만원 미만	53(+6.9)	6.9	10(-7.9)	1.3	9(+1.0)	1.2	72	9.4	
100만원 이상	13(+.2)	1.7	4(-1.0)	.5	3(-.8)	.4	20	2.6		
	계	493	64.0	191	24.8	86	11.2	770	100.0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유의적이지 않음.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동이 증가 됨에 따라 손님접대를 위한 공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2) 침실 1(안방)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침실 1(안방)은 부부만이 사용하는 곳으로 손님은 물론 자녀들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응답자

중 64.0%로 가장 많았고, 손님접대는 하지 않되 가족들간의 휴식, 대화, 오락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4.8%, 손님 접대할 수 있는 공간 즉, 외부인을 의식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경우가 11.2%로 나타났다. 즉, 많은 거주자들이 침실1의 부부중심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안방의 기

〈표 Ⅱ-3〉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과 욕실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구분		욕실에 대한 가치관		위생공간		휴식공간		계		χ^2
		f	%	f	%	f	%			
평면규모	13 평	64	8.3	57	7.4	121	15.7	N.S. 11.89		
	15 평	70	9.1	63	8.2	133	17.2			
	18 평	86	11.1	130	16.8	216	28.0			
	22 평	64	8.3	74	9.6	138	17.9			
	25 평	68	8.8	96	12.4	164	21.2			
계		352	45.6	420	54.4	772	100.0			
가족수	2 명	20(-.5)	2.6	25(+.5)	3.2	45	5.8	17.32*		
	3 명	78(-1.3)	10.1	96(+1.3)	12.4	174	22.5			
	4 명	170(-2.8)	22.0	209(+2.8)	27.1	379	49.1			
	5 명	64(+4.3)	8.3	67(-4.3)	8.7	131	17.0			
	6 명 이상	20(+.4)	2.6	23(-.4)	3.0	43	5.6			
계		352	45.6	420	54.4	772	100.0			
가정생활주기	가족형성기	123(-16.9)	16.9	183(+16.9)	25.2	306	42.1	17.39*		
	확대초기	100(+2.6)	13.8	113(-2.6)	15.6	213	29.3			
	확대중기	57(+9.9)	7.9	49(-9.9)	6.3	103	14.2			
	확대후기	14(+.3)	1.9	16(-.3)	2.2	30	4.1			
	축소기	38(+4.2)	5.2	36(-4.2)	5.0	74	10.2			
계		332	45.7	394	54.3	726	100.0			
수입	20만원 미만	4(+1.3)	.5	2(-1.3)	.3	6	.8	31.51***		
	20만원~40만원 미만	100(+23.6)	13.0	68(-23.6)	8.9	168	21.9			
	40만원~60만원 미만	142(-7.7)	18.5	187(+7.7)	24.4	329	42.9			
	60만원~80만원 미만	72(-6.7)	9.4	101(+6.7)	13.2	173	22.6			
	80만원~100만원 미만	26(-6.3)	3.4	45(+6.3)	5.9	71	9.3			
100만원 이상	5(-4.1)	.7	15(+4.1)	2.0	20	2.6				
계		349	45.5	418	54.5	767	100.0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유의적이지 않음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물 땀 수치임

능인 가족중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 침실 1에 대한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 한 결과 〈표 Ⅱ-2〉와같이 평면규모,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 각 .01, .05,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가족수에 따라

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사대상가구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해 볼 때 평면규모가 25명인가구, 가정생활주기가 확대초기에 있는 가구, 가구의 월평균수입이 60만원~1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예상보다 더 많은 거주자가 침실 1은 부부중심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13명의 아파트에 거주하

는 가구, 가족 형성기나 확대증기에 있는 가구, 월 평균 수입이 20만원~6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거주자가 침실 1은 가족중심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확대후기나 축소기에 있는 가구, 월평균 수입이 60만원~80만원 미만인 가구에 예상보다 더 많은 거주자가 침실 1은 손님접대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어린 가족형성기에는 침실 1을 가족중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점차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확대초기에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부부중심적인 공간으로 요구하게 되며, 다소 안정이 되는 확대중기부터는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부부중심적인 공간보다는 가족중심적인 공간으로, 가족중심적인 공간보다는 손님 접대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입이 많은 가구는 주택의 밀집상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자실의 기능이 분화되어 침실 1을 공동생활공간으로 보다는 그 주기능인 부부침실, 즉 개인 생활공간이나 손님접대라는 부부들 위한 특별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부엌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부엌은 취사의 기능 뿐 아니라 그 집에 사는 가족에게 시작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주자가 52.7%로 가장 많았고, 작업에 편리하게 설비와 배치 및 시설이 되어있는 공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주자가 35.0%, 손님들이 집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름답고,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경우가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부엌의 취사라는 기본 기능은 어느정도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있으며, 그외에 거주자에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시작적인 측면을 고려한 공간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해서 부엌이 그 집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만큼 부엌공간이 거주공간내에서 제 1의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말해준다.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정도에

따라 부엌에 관련된 가치관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욕실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욕실은 위생공간으로서의 기본 기능외에 휴식공간으로도 생각되어야 하므로 시작적인 쾌적성도 지녀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주자가 54.4%, 목욕세면등의 위생을 위한 기본 욕구만 만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주자가 45.6%로 나타났다.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 욕실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 한 결과 <표 III-3>과 같이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평면규모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가구 전체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할 때 가족수가 증가하고 가정생활주기가 형성기에서 확대기를 거쳐 축소기로 진행됨에 따라 욕실은 위생공간 외에 휴식공간으로도 생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생을 위한 기본 욕구만 충족시켜주면 된다는 관점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였고,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휴식공간으로서의 희망을 나타냈다.

(5) 발코니에서 의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발코니는 온실등과 같이 실내공간이 연장된, 주거의 정서생활을 위해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주자가 62.3%, 세탁물건조장독대 및 가구수납이라는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보관위주의 작업보조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주자가 37.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점차적으로 발코니를 단순히 물건보관위주의 작업보조 공간으로 보다는 아파트라는 주택유형상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거주자의 취미활동등 정서생활에 이용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 발코니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 한 결과 <표 III-4>와 같이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평면규모와 가족수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구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할 때

〈표 Ⅱ-4〉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과 발코니에서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발코니에 대한 가치관			돌진 위주의 작업 보조 공간		정서생활을 위한 공		계		χ^2			
			f	%	f	%	f	%				
평 면 규 모	13	평	49	6.3	73	9.4	122	15.8	N.S. 5.96			
	15	평	61	7.9	72	9.3	133	17.2				
	18	평	76	9.8	141	18.2	217	28.0				
	22	평	46	5.9	92	11.9	138	17.8				
	25	평	60	7.8	104	13.4	164	21.2				
계			292	37.7	482	62.3	774	100.0				
가 족 수	2	명	12	1.6	33	4.3	45	5.8	N.S. 5.42			
	3	명	66	8.5	107	13.8	173	22.4				
	4	명	138	17.8	243	31.4	381	49.2				
	5	명	55	7.1	75	9.7	130	16.8				
	6	명 이상	21	2.7	24	3.1	5	5.8				
계			292	37.7	482	62.3	774	100.0				
가 정 생 활 주 기	가	족	형	성	기	104(-13.0)	14.3	201(+13.0)	27.6	305	42.0	16.09**
	확	대	초	기	88(+ 6.3)	12.1	125(- 6.3)	17.2	213	29.3		
	확	대	중	기	37(- 2.5)	5.1	66(+ 2.5)	9.1	103	14.2		
	확	대	후	기	21(+ 9.5)	2.9	9(- 9.5)	1.2	30	4.1		
	축	소	기	29(- .2)	4.0	47(+ .2)	6.5	76	10.5			
계			279	38.4	448	61.6	727	100.0				
수 입	20만원 미만		5(+ 2.7)	.7	1(- 2.7)	.1	6	.8	15.57**			
	20만원~40만원 미만		76(+12.3)	9.9	93(-12.3)	12.1	169	22.0				
	40만원~60만원 미만		128(+ 3.9)	16.6	201(- 3.9)	26.1	329	42.8				
	60만원~80만원 미만		56(-10.0)	7.3	119(+10.0)	15.5	175	22.8				
	80만원~100만원 미만		19(- 7.4)	2.5	51(+ 7.4)	6.6	70	9.1				
	100만원 이상		6(- 1.5)	.8	14(+ 1.5)	1.8	20	2.6				
계			290	37.7	479	62.3	769	100.0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유의적이지 않음.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가정생활주기가 확대초기나 확대후기에 있는 가구,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60만원 미만인 가구에 예상보다 더 많은 거주자가 발코니를 정서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6) 수납공간에 대한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수납공간은 각 방에 우선 필요한 정도만 넣어둘 수 있는 수납시설을 하고 여러 공간에서 쓰이는 물

품을 함께 보관하는 별도의 큰 물품고를 마련한다고 생각하는 거주자가 62.0%, 각 방의 용도와 필요에 따라 분산설치하여 관련된 대부분의 물품을 필요한 곳 가까이 모두 수납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는 거주자가 38.0%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적 대다수의 거주자가 주택내의 수납시설은 최소한의 것을 각 방에 분산설치하고 별도의 큰 물품고를 두

〈표 Ⅱ-5〉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과 수납공간에 대한 생활양식에 관련된 가치관

구분		수납공간에 대한 가치관		자방에 분산설치		별도의 큰 물품고설		계		χ^2
					%	f	%	f	%	
평면규모	13 평	43	5.6	79	10.2	122	15.8	N. S. 3.76		
	15 평	42	5.4	90	11.7	132	17.1			
	18 평	85	11.0	131	17.0	216	28.0			
	22 평	56	7.3	82	10.6	138	17.9			
	25 평	67	8.7	96	12.5	163	21.1			
	계	293	38.0	478	62.0	771	100.0			
가족수	2 명	13(- 4.1)	1.7	32(+ 4.1)	4.2	45	5.8	10.40*		
	3 명	159(- 6.7)	7.7	114(+ 6.7)	14.8	173	22.4			
	4 명	59(+15.7)	20.6	218(-15.7)	28.3	377	48.9			
	5 명	52(+ 2.2)	6.7	79(- 2.2)	10.2	131	17.0			
	6 명 이상	10(- 7.1)	1.3	35(+ 7.1)	4.5	45	5.8			
	계	293	38.0	478	62.0	771	100.0			
가정생활주기	가족형성기	103	14.2	202	27.9	305	42.1	N. S. 8.63		
	확대초기	95	13.1	116	16.0	211	29.1			
	확대중기	44	6.1	58	8.0	102	14.1			
	확대후기	12	1.7	18	2.5	30	4.1			
	축소기	25	3.5	51	7.0	76	10.5			
	계	279	38.5	445	61.5	724	100.0			
수입	20만원 미만	2	.3	4	.5	6	.8	N. S. 7.79		
	20만원~40만원 미만	49	6.4	118	15.4	167	21.8			
	40만원~60만원 미만	138	18.0	190	24.8	328	42.8			
	60만원~80만원 미만	66	8.6	107	14.0	173	22.6			
	80만원~100만원 미만	28	3.7	44	5.7	72	9.4			
	100만원 이상	7	.9	13	1.7	20	2.6			
	계	290	37.9	476	62.1	766	100.0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N. S. 유의적이지 않음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고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면규모,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 수납공간에 대한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 한 결과 〈표 Ⅱ-5〉와 같이 가족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평면규모, 가정생활주기, 수입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할 때, 가족수가 3명 이하인 가구에는 별도의 큰 물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거주자가, 가족수가 4명인 가구에는 자방에 분산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한 거주자가, 가족수가 6명 이상인 가구에는 다시 별도의 큰 물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거주자가 예상보다 많았다.

<표 Ⅲ-6> 각 실의 전체만족과 각 특성별 만족간의 상관관계(r)

실구분	물리적 특성	크기에 대한	위치에 대한	방음에 대한	수납공간에 대한	시설물에 대	작업대 면	작업대 배
	특성	만족 정도	만족 정도	만족 정도	만족 정도	한 만족정도	적에 대한 만족정도	열에 대한 만족도
침 실 1		.47***	.27***	.23***	.23***	—	—	—
침 실 2		.09***	.16***	.70***	.16***	—	—	—
침 실 3		.56***	.53***	.30***	.35***	—	—	—
거 실		.50***	.53***	.26***	.39***	—	—	—
부 영		.51***	.42***	—	.43***	.36***	.58***	.56***
욕 실		.61***	.52***	.39***	—	.65***	—	—
다용도실		.53***	.37***	—	.48***	.52***	—	—
현 판		.63***	.52***	—	.57***	—	—	—
발코니		.55***	.44***	.41***	—	—	—	—

* .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시킨 것임

2) 내부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거주자의 평가

아파트 내부공간(침실 1,2,3, 거실, 부엌, 욕실, 다용도실, 현판, 발코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거주인의 평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내부공간의 물리적 특성인 크기, 위치, 방음, 수납공간 각각에 대한 만족정도와 자 내부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그 반응의 긍정반응에 따라 5단계척도들이 이용하여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이에 따라 자 내부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와 자 특성별 만족정도간의 관련성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구하여 알아보고, 이들 각각의 특성 및 내부공간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만족정도의 평균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만족정도가 평면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F-test하였고, 그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가족수별 아파트 크기에 대한 평가내용도 살펴 보았다.

(1) 각 실별 만족정도와 물리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각 실의 물리적 특성별 만족정도가 각 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표 Ⅲ-6>과 같이 자 실별로 자 특성과 모두 유

의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침실 1(안방)은 크기, 침실 2는 방음, 침실 3과 거실은 크기, 위치의 순으로, 부엌은 작업대 면적, 작업대 배열, 크기, 수납공간, 위치의 순으로, 욕실은 시설물, 크기의 순으로, 다용도실은 크기, 시설물, 수납공간의 순으로, 현판은 크기, 수납공간의 순으로, 발코니는 크기에 의해 전반적인 만족정도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실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정도

각 실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정도는 모든 내부공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 내부공간의 물리적 특성중 위치에 대해서는 대개 다 만족하는 편이며, 방음과 수납공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재 대상아파트의 질적 측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해주며, 앞으로 아파트 계획시 방음과 수납공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

① 평면규모에 따른 자 실의 크기에 대한 만족정도

아파트의 평면규모에 따라 자 내부공간의 크기에 대한 만족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F-test한 결과 <표 Ⅲ-7>과 같이 침실 1,2,3, 거실, 욕실, 다용도실, 현판 발코니의 크기에 대한

〈표 Ⅱ-7〉 평면규모에 따른 각 실의 크기에 대한 만족정도

실 구분	평면규모	사 례 수	평 균	F	Duncan's*
침 실 1	25평	163	3.49	13.97***	A A A B B
	13평	122	3.42		
	22평	138	3.29		
	18평	217	2.93		
	15평	133	2.77		
침 실 2	22평	130	3.54	14.45***	A A B B C C
	25평	162	3.50		
	13평	120	3.14		
	15평	128	2.95		
침 실 3	25평	154	3.21	4.70***	A A A A
	15평	13	3.08		
	22평	121	3.03		
거 실	25평	164	3.87	43.50***	A B B C D
	15평	133	3.39		
	22평	138	3.37		
	18평	215	3.16		
	13평	110	2.37		
부 욕	22평	139	2.86	.83 N.S.	
	18평	216	2.86		
	15평	133	2.76		
	25평	162	2.72		
	13평	121	2.69		
욕 실	25평	162	3.52	87.32***	A A B C C
	22평	136	3.39		
	18평	217	2.79		
	15평	133	1.92		
	13평	119	1.86		
다 용 도 실	13평	120	3.29	6.08***	A B B B B
	15평	130	2.91		
	25평	163	2.90		
	22평	137	2.72		
	18평	217	2.67		
현 관	18평	218	3.22	4.97***	A A A A B
	22평	136	3.19		
	25평	164	3.19		
	15평	133	2.93		
	13평	122	2.83		
발 코 니	25평	164	3.70	8.58***	A A A B B
	22평	138	3.69		
	15평	132	3.63		
	18평	218	3.31		
	13평	121	3.21		

크기에 대한
만족 정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유의적이지 않음.

*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음.

〈표 8〉 평면규모에 따른 각실의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정도

실 구분	평면규모	사 계 수	평 균	F	Duncan's*
1	22평	98	2.74	9.62***	A B B BC C
	18평	162	2.45		
	25평	131	2.45		
	13평	110	2.22		
	15평	126	1.99		
침 실 2	22평	92	2.83	9.55***	A B B BC C
	18평	162	2.48		
	13평	109	2.34		
	25평	134	2.25		
	15평	123	2.03		
침 실 3	22평	82	2.83	3.48**	A A A A A
	18평	102	2.48		
	25평	132	2.42		
	15평	13	2.15		
	13평	2	1.50		
거 실	22평	119	2.85	13.71***	A A B B C C
	18평	174	2.67		
	25평	145	2.55		
	13평	102	2.23		
	15평	126	2.02		
부 욕	18평	188	2.69	N. S. 2.18	
	22평	122	2.62		
	25평	156	2.56		
	13평	120	2.42		
	15평	128	2.41		
다 용 도 실	22평	110	2.63	4.15**	A A B BC B C C
	18평	186	2.44		
	25평	149	2.34		
	13평	110	2.32		
	15평	119	2.13		
현 관	22평	124	2.98	14.77***	A A B B C C
	25평	157	2.77		
	18평	183	2.73		
	13평	113	2.27		
	15평	126	2.15		
발 코 니	22평	116	2.62	6.97***	A B B BC B C C
	18평	162	2.31		
	13평	111	2.21		
	25평	131	2.17		
	15평	118	1.93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정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유의적이지 않음
 *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음

〈표 Ⅲ-9〉 평면규모별 가족수에 따른 아파트 크기에 대한 평가

평면규모	가족수	2명	3명	4명	5명	6명	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13 평	평균	3.39	3.48	3.78	4.29	4.00	3.72
	빈도	18	33	50	17	4	122
15 평	평균	3.25	3.45	3.58	3.81	3.57	3.55
	빈도	8	38	62	16	7	131
18 평	평균	2.67	3.27	3.56	3.83	4.17	3.53
	빈도	9	48	119	30	12	218
22 평	평균	2.80	3.12	3.30	3.52	3.50	3.31
	빈도	5	26	70	27	12	140
25 평	평균	2.40	2.79	3.00	3.26	3.40	3.04
	빈도	5	29	78	42	10	164
계	평균	3.04	3.25	3.43	3.64	3.71	3.42
	빈도	45	174	379	132	45	775

만족정도는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실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평수가 작을수록 만족정도가 낮았다.

따라서, 13평의 경우는 거실, 욕실, 현관, 발코니, 15평의 경우는 침실 1, 욕실, 현관, 18평의 경우는 침실 1과 발코니의 크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13평의 경우 다른 평면규모에 비해 다용도실의 크기가 타락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구성이나 면적등을 검토하여 다른 평면 규모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② 평면규모에 따른 자실의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정도

아파트의 평면규모에 따라 자 내부공간의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F-test 한 결과 〈표 Ⅲ-8〉과 같이 침실 1(안방), 2, 3, 거실, 다용도실, 현관, 발코니의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정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볼때 22평 아파트 거주자들의 만족정도가 가장 높았고, 15평 거주자들의 만족정도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15평의 경우 침실 1, 거실, 다용도실, 현관, 발코니의 수납공간에 대한 제점도를 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하여야겠다.

(3) 아파트의 크기에 대한 평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크기에 대한 거주자의 평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의 아파트 크기가 가족수에 비해 어떻게 생각되는가에 대한 응답에 대해 '너무넓다'에 1점, '조금넓다'에 2점, '적당하다'에 3점, '조금좁다'에 4점, '너무좁다'에 5점을 주었는데, 그 결과 평균이 3.42로 전반적으로 가족수에 비해 현재의 아파트 크기가 조금 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면규모별로 가족수에 따라 아파트 크기에 대

2) 〈표〉 자실평수 구성표(중용아파트 기준) (단위: 평)

평형	거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주방식당	욕실	현관	발코니	기타
13 평형	—	3.9*	2.8	—	3.2	.8	.4	2.8	1.9
15 평형	3.8	3.3	2.2	—	3.2	.8	.4	2.8	1.6
18 평형	3.6	3.9	2.4	2.2	2.8	1.1	.4	3.2	1.7

* 13평형의 경우 거실침 침실 1임

〈표 Ⅱ-10〉 내부공간의 물리적 특성

내부공간의 물리적 특성		분 포		계	
		f	%	f	%
방의 크기와 갯수	현상태가 좋다	372	48.3		
	면적을 넓게	314	40.8		
	수를 늘렸으면	71	9.2		
	아무래도 좋다	13	1.7		
	계	770	100.0		
안방과 다른 방의 크기	현상태가 좋다	289	37.4		
	안방을 넓게	310	40.2		
	다른 방을 크게	49	6.3		
	크기를 같게	121	15.7		
	아무래도 좋다	3	.4		
계	772	100.0			
거실의 크기	현상태가 좋다	394	50.8		
	거실을 넓게	316	40.8		
	방을 넓게	52	6.7		
	아무래도 좋다	13	1.7		
	계	775	100.0		
거실의 형태	미달이문 설치	228	29.4		
	문설치 않는 것	493	63.6		
	아무래도 좋다	54	7.0		
	계	775	100.0		
	부엌·식당·거실의 연결형태	L, D, K 분리형	53	6.8	
L, D-K 형		449	57.8		
L-D, K 형		88	11.3		
L-D-K 형		176	22.7		
아무래도 좋다		11	1.4		
계	777	100.0			
발코니의 형태	모양과 재질을 같게	465	60.0		
	면적과 모양을 달리	99	12.8		

내부공간의 물리적 특성		분 포		계	
		f	%	f	%
면적은 같으나 모양은 다르게	아무래도 좋다	149	19.2		
	계	62	8.0		
	계	775	100.0		
가구설치의 정도	모든가구를 입주자가 설치	0	3.9		
	부엌의 불박이 가구만 설치	55	7.2		
	불박이가구와 몇개의 장만 설치	235	30.7		
	불박이가구는 모두설치 거의 모든 일상가구 설치	407	.		
	옷장, 신장만 불박이로 설치	38	5.0		
계	766	100.0			
수납공간을 신경써서 설치해야 할 공간	거실	184	24.8		
	안방	42	5.7		
	자녀방	68	9.2		
	부엌	176	23.8		
	식당	21	2.8		
	욕실	40	5.4		
	다용도실	122	16.5		
	발코니	68	9.2		
	현관	20	2.7		
	계	741	100.0		
현관 출입 형태	현상태가 좋다	531	69.7		
	현관의 진입위치를 발코니쪽으로	198	26.0		
	아무래도 좋다	33	4.3		
계	762	100.0			

한 평가 내용을 살펴본 결과 〈표 Ⅱ-9〉에서와 같이 가족수에 따른 적절한 평면규모의 기준이 나타났다. 즉, 가족수가 2명인 가구는 15명~18명 사이, 3명인 가구는 22명~25명 사이, 4명인 가구는 25명이, 5명인 가구는 25명보다 조금 넓은 규모, 6명 이상인 가구는 25명 이상이 적절함을 나타내 준다.

3) 내부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거주자의 선호 및 요구사항

아파트 내부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거주자의 선호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의 크기와 갯수, 안방과 다른방의 크기, 거실의 크기, 거실의 형태, 부엌-식당-거실의 연결 형태, 발코니의 형태, 가구설치의 정도, 수납공간을 신경써

서 설치해야 할 공간, 현관출입형태등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 및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10>과 같으며 이러한 것들이 평면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를 하였다. 또한 χ^2 -test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기대빈도와 관찰빈도를 비교하여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실, 안방 부엌에서의 창 크기 및 높이에 대한 의견도 조사하였다.

(1) 방의 크기와 갯수

현상태가 좋다고 한 경우와 방의 수를 줄이더라도 방의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평면규모별로는 22명과 25명은 현상태가 좋다고 한 경우가, 15명과 18명은 면적을 넓게 했으면 하는 경우가 전반적인 분포경향보다 많았다. 이는 작은 평수에서 공간에 대한 협소감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안방과 다른방의 크기

안방을 크게 하고 다른방을 작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와 현상태가 좋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평면규모별로는 13명, 15명, 18명은 안방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가, 22명은 현상태가 좋다고 한 경우가, 25명은 현상태가 좋다고 한 경우와 다른 방을 크게 하면 좋다는 경우가 전반적인 분포경향보다 많았다.

(3) 거실의 크기

현상태가 좋다고 한 경우와 방의 면적은 줄이더라도 거실의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철(1981)이 아파트 거주자들이 거실의 물리적, 시각적 공간감을 느끼기를 원함을 지적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평면규모별로는 13명과 18명은 거실의 면적을 넓게 하면 좋다는 경우가, 15명은 거실의 면적을 줄이더라도 방의 면적을 넓게 했으면 하는 경우가 25명은 현상태가 좋다고 한 경우가 전반적인 분포경향보다 많았다.

(4) 거실의 형태

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가 많았으나 미닫이 문을 설치하여 침실겸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도 29.4%나 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현대사회의 이동적 특성이 요구하는 공간의 융통성(flexibility)에 대한 욕구 때문인 것이라 생각될 수 있다.

(5) 거실-식당-부엌의 연결형태

L, D-K형이 좋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평면규모별로는 15명은 L-D-K형을, 18명, 22명, 25명은 L, D-K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전반적인 분포경향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최희재(1984)가 25명에서 45명 규모까지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L, D, K형에 대한 선호가 꽤 높았음을 고려할 때 공간규모가 작을 수록 개방될수록 규모가 클수록 분리됨을 원한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6) 발코니의 형태

대부분이 모든 세대의 발코니 모양과 재질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7) 가구설치의 정도

불박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가구(부엌가구, 신장, 옷장, 장식장, 책장)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와, 부엌의 불박이 가구와 몇개의 장(신장, 장식장)만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8) 수납공간 설치

아파트 공급시 신경써서 수납공간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곳은 거실, 부엌, 다용도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면규모별로는 13명은 부엌, 15명은 욕실, 18명은 거실, 22명은 자녀방, 25명은 다용도실의 수납공간을 신경써서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경우가 전반적인 분포경향보다 많았다.

(9) 현관출입형태

현상태가 좋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관의 진입위치를 발코니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도 26.0%나 되었다.

평면규모별로는 13명과 15명은 현관의 진입위치를 발코니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가, 18명, 22명, 25명은 현상태가 좋다고 한 경우가 전반적인 분포경향보다 많았다. 이는 작은 평수에서 공간의 제한으로 인한 협소감을 탈피해 보고자 하는 거주자의 욕구 때문이 아닌까 생각될 수 있다

(10) 창의 크기 및 높이

거실, 안방, 부엌의 창 크기 및 높이에 대해 대

부분의 거주자가 현상태가 좋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더 높거나 낮은 것을 원하는 거주자도 적지 않았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조사결과 나타난 우리나라에서의 주거공간에 대한 가치관은 그 요구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우선 거실은 재래의 응접실 개념이 담긴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가족실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안방은 전통적인 가족실의 역할에서 벗어나 부부만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두드러지며, 부엌은 작업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실리적,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과거 거의 수납공간화 되었던 발코니의 경우, 제 기능을 찾아 욕의공간과 실내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장소로 거주자의 정서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실해졌다. 수납공간은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위가 일어나는 곳에 필요한 물품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여러 곳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와 규모가 큰 것, 여분의 물품등을 넣어두는 큰 공간을 요구함으로써,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불박이 가구는 주거지 이동이 잦은 현대인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관을 파악한 결과는 직접적으로 설계지침이 될 수는 없으나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정부나 민간기업은 이러한 대중의 공간욕구를 질적인 측면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의 각 공간을 계획할 때 특히 고려되어야 할 물리적 특성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자를 통한 연구가 아니면 정의내리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 실제로 생활하는 거주자의 관점에서 제시된 적정규모는 2인가족의 경우 15명~18명, 3인인 경우 18명~25명, 그리고 4인인 경우는 25명~35명이었다.

기존주택의 공간형태 및 구성을 전제로 하여 선호 및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특히 방의갯수보다는 넓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이 현상은 또한 발코니쪽으로 현관을 들이므로 내부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소규모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무시 못할 정도로 나온 것과 부엌, 거실, 식당을 개방감을 지니도록 연결시키기를 희망하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의 공간에서는 좁다는 느낌이 덜 들도록 마감재의 색채 사용이나, 공간분할을 신중히 고려하고, 거주자가 실내벽을 융통성있게 변경할 수 있는 벽구조체계를 고려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상제지구 주거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아파트 각 내부공간을 계획할 때 다음과 같은 생활양식과 관련된 거주자의 가치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거실은 가족들의 휴식, 대화, 오락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중심적 공간으로 가족실의 성격이 강조되므로, 반드시 거실과 현관이 인접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안방은 종래 가족실의 개념을 가졌으나 부부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부엌은 취사의 기능뿐 아니라 시각적, 심리적인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나타났으므로, 재료, 색, 선등의 디자인 측면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욕실은 위생공간으로서의 기본기능외에 휴식공간으로서의 시각적인 쾌적성을 지닌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을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하여야겠다.

(5) 발코니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해주는 중간공간이며 거주인이 특히 정서함양을 요구하는 장소이므로 내부공간에서 밖을 바라볼 때 쾌적감을 줄 수 있도록 조경에 신경을 써야하며, 동시에 실내공간의 연장으로서의 발코니 자체공간은

취미, 정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특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수납공간은 각 실에 필요한 정도만 넣어둘 수 있는 수납시설을 하고, 여러공간에서 쓰이는 물품이나 규모가 큰 물건 또는 여분의 물건등을 함께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큰 물품고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거주자의 선호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각 내부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침실은 수문 줄이더라도 방의 면적을 넓게 하고, 특히 다른 방보다 안방을 넓게 하는 것이 좋겠다.

(2) 거실은 천재 15명형의 경우, 3.8명, 18명형의 경우 4.2명, 그리고 22명과 25명형은 대개 4.8~5.2명 정도인데 그 이상의 넓이로 하고 문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3) 15명이하 규모의 아파트는 L-D-K 형으로, 18명이상 규모는 L,D-K 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4) 발코니형태는 모든 가구를 동일하게 하는 것도 무난하나, 구조적 해결에 낭비감안책만 있다면 다양한 형태로 시도해 보아도 좋겠다.

(5) 모든 가구를 가능하면 불박이로 설치함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6) 거실, 부엌, 그리고 다용도실의 순으로 그 수납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7) 현관출입형태는 현 상태가 일반적이거나, 아

주 좁은 평수의 경우 협소감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다면 발코니쪽으로도 계획해 보는 것도 좋겠다.

참 고 문 헌

1. 김 결, "집합주거에서 거실을 중심으로한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1981.
2.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입주자 실태조사 보고서", 1984.
3. _____, "용통성 주거개발 연구", 1984.
4. 최희재, "아파트 거주주부의 식사공간에 대한 만족도 및 희망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5. Brill, Michael, "Evaluating Buildings on a Performance Basis", *People and Building* edited by Robert Gutman, New York: Basic Books, Inc., 1972.
6. Gutman, Robert and Barbara Westergaard, "Building Evaluation, User Satisfaction, and Design", *People and Building* edited by Robert Gutman, New York: Basic Books, Inc., 1972.
7. Steidl, Rose E., "Affective Dimensions of High and Low Cognitive Homemaking Task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4, No. 2, December, 1975.